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7 Number 07 07 2019

진화론의 10가지 거짓말 뒤집기

이 글은 미국 창조연구소의 브라이언 박사의 최근 글이다. 진화론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지적한 글이기에 번역하였다.

ICR(미국 창조연구소) 설립자인 모리스(Henry Morris) 박사는 2003년에 "모든 미디어가 진화론을 강력하게 홍보해왔고... 공립학교와 세속 대학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었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은 여전히 진화론의 일부를 불신하고 있다. 이에 모리스 박사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진화를 반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는 진화론자를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화론적 약점을 인식하고 창조론적 관점을 더 많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아래 글은 진화론에 대한 10가지 거짓 진술을 검토함에 따라, 자연과정이 순전히 초자연적인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데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안된 몇 가지 질문들은 각 주제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에 대하여 마치 과학적 사실 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입증된 적 없는 추측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폭발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빅뱅이 우주의 기원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과 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훨씬 더 큰 크기로부터 확장할 수 있으셨다.

세속적인 교과서조차 수평선 문제와 성숙한 은하 문제와 같은 빅뱅의 한계를 알고 있다. 빅뱅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그 구조와 온도에 걸쳐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이 놀랄 만한 균일성 또는 "동일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빅뱅이 옳다면 또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는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오래 전에 은하가 처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므로) 어린 은하로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운 은하와 같은 나이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

질문: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빅뱅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을까? 수평선 문제와 먼 은하의 성숙한 모습의 문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처음 '폭발'된 모든 재료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2. 지구는 46억년 되었다?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지구가 46억년 전에 자연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증거가 우리 행성이 그보다 젊음을 확인시켜준다. 예를 들면, 현재 지구 자기장의 쇠퇴 속도를 보면 지구 자기장은 10만년 전에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구의 화석, 석탄 및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은 모두 짧은 수명의 방사성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10만년 보다 오래될 수 없다.

질문: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면 왜 아직도 자기장이 있을까?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여기는 천연자원에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탄소가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지질학자들은 암석의 나이를 정하는데 좋은 과학(good science)을 사용한다?

어떤 지질학자도 암석의 나이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이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암석의 동위원소 양을 측정할 때, 동위원소 비율을 시간 추정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일관된 붕괴 속도, 동위 원소의 처음 비율, 그리고 동위원소가 붕괴된 이래로 동위원소의 출입 여부를 가정한다.

암석

같은 암석 표본에서도 동위원소를 통한 "나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버려야 할 것인지 자신의 신념으로 결정해야 한다. ICR은 RATE(방사성 동위원소와 지구의 나이)의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측정할 때 나쁜 과학(bad science)을 사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해왔다.

질문: 이미 생성된 시기를 알고 있는 암석에 대하여 이 방법이 종종 부정확한 나이를 제공한다면, 과거에 형성된 암석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같은 암석에서) 측정된 동위원소의 나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과학자들은 어느 것이 옳은 지 어떻게 결정할까?

4. 과학자들은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는 수준에 근접했다?

과학자들이 화학물질로 생물학적 생명체를 만들려고 적어도 한 세기를 보냈지만 하나의 DNA 분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세포의 에너지, 정보 저장, 신진대사 기계는 서로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잡한 시스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는 한 첫 세포는 자연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생명체에 붙어있지 않는 체세포는 파괴된다. 생명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의 모든 실패는 생명의 근원 이신 하나님을 강조한다(시 36:9).

질문: 과학자들이 자연과정만으로 DNA를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단백질이 없이 DNA를 보호하고, 포장하고, 조작하고, 보내고, 알맞은 단백질을 생성하고, 스스로 유전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아직 한 번도 유도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런 단백질을 획득하거나 발달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5. 우리는 지렁이와 공통 조상에서 비롯되었다?

고양이 종류에 포함된 사자, 호랑이, 라이거 및 치타와 같이 하나의 종류 내의 변이는 관찰된다. 생물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질 변형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물고기가 개구리로 변하거나 지렁이가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만들고, 개구리는 개구리를 생산하며, 지렁이는 지렁이가 된다.

진화론자들은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어떤 전이 화석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생물 사이의 비슷한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공통조상의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각 연구가들은 서로 다른 지도를 만든다. 이들이 만든 모든 지도는 한 특성을 가진 생물이 자발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종류로 진화하는 상상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질문: 한 종류의 유기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단 하나의 과학논문이라도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은 똑같은 생물 군을 위해 많은 다른 조상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이런 인위적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6.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DNA의 변화는 진화의 진행을 보여준다?

시카고 대학교의 렌스키(Richard Lenski) 박사의 유명한 대장균 육종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진화를 관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실험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진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5만 세대가 지난 후에도 대장균은 여전히 대장균만을 생산한다.

돌연변이로 인해 일부 대장균은 조절장치를 잃어버리며 더 효과적인 구연산염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손실로 인해 발생한 돌연변이가 세균 이외의 더 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발전된 적은 없다. 이와 동일한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분자로부터 인간까지의 진화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독감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독감에만 맞서고 있다.

질문: 5만 세대 이후에도 박테리아가 어떤 새로운 기능으로도 진화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감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큰 그림의 진화를 증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왜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여전히 독감 바이러스로만 남아있는가?

7. 자연선택이 생물들의 외형을 변화시킨다?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다양한 특성을 갖추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환경적 압력을 통한 자연선택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기의 성질은 새의 깃털이 공기 저항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은 동식물에서 자연선택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이나 기관이 생성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질문: 환경이 어떻게 생물을 재설계하도록 하는가? 공기가 어떻게 깃털의 공기역학적인 능력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가? 왜 공기는 모든 생물에게 깃털을 주지 않는가? 실제로 자연선택이 생물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아무도 본적이 없는데 생물의 독특한 모습에 대하여 진짜 설계자에게 공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키세투스

8. 고래 화석은 진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파키세투스(Pakicetus)가 고래 조상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2001년에 지느러미가 아닌 다리가 달린 전신의 파키세투스 화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이 가짜 표본을 계속해서 전시한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걷는 포유류가 고래로 진화했다고 가르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래 조상들이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엉덩이 뼈"가 쓸모 없

진화론은 실질적인 증명이 아닌 단지 말로만 이루어져 있다.

ICR은 진화론자들의 확언과 논증을 평가하는 깊이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자연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믿음에 의심을 줄 수 있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는 흔적기관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골반뼈는 수중 교미에 필수적임을 알았다.

질문: 파키세투스가 고래로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능상의 신체 변화가 있어야 하겠는가? 부분적으로 개와 고래의 모양을 함께 가졌던 과도기적 생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이 고래 엉덩이 뼈를 잘 못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래가 이전에 다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믿어야 하나?

9. 원숭이–인간 화석은 인류 진화를 증명한다?

루시

요한슨(Donald Johanson)은 자신이 발견한 화석인 "루시(Lucy)"를 인간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화이트(Tim White)는 자신의 발견을 통해 "인간의 조상은 루시가 아닌 아르디(Ardi)"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옳은 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박물관에는 (전이) 화석에 대한 증거로 인간의 발과 함께 루시가 전시되어 있다. 2018년에 '어린' 루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엄지발가락이 굽어 있었고 원숭이를 닮았었다. 루시는 멸종된 원숭이일 뿐이지 인간을 닮은 부분이 없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조상으로 발표되었던 모든 화석들을 멸종된 원숭이, 멸종된 인간, 확인할 수 없는 것 또는 사기품으로 분류했다. 또한 일부 진화론적 전문가들 역시 발표된 모든 것을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질문: 당신은 인간 진화의 증거라고 모든 진화론적 전문가가 동의하는 어떤 전이 화석의 이름이라도 말할 수 있는가? 인간 진화가 사실이라면 동물에게 없는 추상적 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과 같이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을 자연과정이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10. 인간과 침팬지는 98 %의 유전적 공통점을 공유한다?

침팬지는 진화론적으로 원숭이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것으로 여기는, 쉽게 말해서 동물계 안에서 사람과 친인척 관계이다. 진화의 세속적인 시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침팬지와 인간 게놈은 적어도 98% 유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보다 6%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나란히 서열을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은 85%를 넘지 않는다. 또한 유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돌연변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98% 유사성이란 결과는 가짜다.

질문: 단순히 크기에 기초하여 침팬지와 인간 게놈의 백분율 차이를 알 수 있는가? 85%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질문

진화론은 실질적인 증명이 아닌 단지 말로만 이루어져 있다. ICR은 진화론자들의 확언과 논증을 평가하는 깊이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자연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믿음에 의심을 줄 수 있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때때로 단 하나의 자극적인 질문이면 충분하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차별화된 무장을 하게 된다.

Thomas Brian, Ph.D., Toppling Ten Fake Facts That Prop Evolution, Acts & Fact,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April 30, 2019.

번역 / 이재만(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CGNTV

지난 5월 6-11일 한국의 기독교 방송사인 CGNTV(대표 이용경) 운영위원회와 직원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 언론에서 진화론의 허구를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시대가 진화론으로 가득 찬 것을 인식하고, 진화론과 맞서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언론으로써 현재 교회 안에 만연한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등 타협이론들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창탐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 창조과학 기관인 AIG(Answers In Genesis)와 ICR(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영상도 훨씬 적극적으로 한국에 알리도록 준비할 것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CGNTV는 '창조탐사 아웃리치', '창세기 대홍수', '처음이 좋았습니다' 등의 창조과학탐사 다큐 뿐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창조과학탐사를 알리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GNTV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창탐에 참석함으로써 전 직원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사고가 반영되도록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지난 5월 16-23일 한국에서 모집된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16번 째입니다. 7박 8일 간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선 셋 분화구, 규화목 & 페인티드 사막, 데스밸리 등의 국립공원 뿐 아니라 세도나, 샌디에이고, 운석구, 창조과학박물관 등 풀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성경적 증거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성경과 주님께 더욱 가까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창조과학이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나누었습니다.

대전온누리교회

지난 6월 2-7일 대전, 수원, 양재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가 연합해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창탐에서 무엇보다도 진화론적 사고로 인해 현 교회의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얼마나 타협이론에 젖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회 리더와 다음 세대가 창탐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계획도 나누었습니다.

바빠지는 여름방학 창조과학탐사

매년 그렇듯이 6-8월 여름방학 기간에 창조과학탐사가 바쁘게 진행됩니다. 이재만 회장, Bill Hoesch, 김선욱 박사, 김낙경 박사 등 창탐을 인도하는 네 명의 강사가 총출동합니다. 진화론의 실제를 알기조차 어려운 진화론으로 가득 찬 이 위기의 세대에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조주께 돌아오게 하는 창탐이 바쁘게 진행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가능케 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Open 창조과학탐사 안내

다음 창조과학탐사에 좌석이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7일(화-주)
7월 9-12일(화-금)
8월 19-22일(월-목)
9월 10-16일(수-월)
9월 17-20일(화-금)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CGNTV

대전 온누리교회

성경적 지질학으로
그랜드 캐니언 이해하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 11:52)

예전부터 성경은 항상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면 홍수 이야기와 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성경에 확실히 기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아왔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15,000명이 넘는 한국의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창조과학탐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암석의 증거들을 성경과 함께 본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 350년 전에 이탈리아 지층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지질학처럼 성경적 지질학은 오늘날까지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 함께 성경 역사의 핵심적인 지질학적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들이 어떻게 현대 지질학에 영향을 끼쳤고 또 그랜드 캐니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자!

성경적 구조

성경에 언급된 5개의 구절은 아주 중요한 지질학의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창세기(1:1) 지구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물이 지구를 덮었던 첫번째 사건이다.

창세기(1:9) 물이 마른 땅에서 흘러나와 퇴적층을 형성했다(이는 동물들이 등장하기 전의 땅이다).

창세기(7:11) 홍수 심판: 깊은 샘이 터진 전 지구적인 격변으로써 지구상의 첫번째 큰 지각 변동(upheaval)을 보여준다.

베드로후서(3:6) 홍수 심판으로 인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것은 전 지구가 물에 잠긴 두 번째 사건이다(물이 빠르게 이동하며 엄청난 양의 흙을 운반하는 저탁류에 의해 수십억이 넘는 동물들이 매몰되어 화석화되었다).

시편(104:6–9) 홍수가 끝나며 물이 빠지는 현상으로 땅이 수직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졌다– 이는 지구의 두번째 광범위한 지각 변동이다.

과학이 성경적 지질학에 끼친 영향

성경적 지질학의 개념은 1669년 '현대지질학의 창시자'인 니콜라스 스테노(Nicolas Steno)에 의해 처음으로 토스카나(Tuscany) 지역의 암석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지질학 보고였기에 과학 분야로써 지질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모든 지질학과 학생들은 암석을 연구하기 위해 "스테노의 세 가지 층서학 원리"를 사용한다. 그 당시에 스테노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성경과 암석 기록, 이 두 가지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보고서에서 해석했던 홍수 사건과 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지금까지 세계 지질학, 특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스테노의 암석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로 홍수 심판을 포함한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 대격변주의자들은 지질학을 선도해왔다. 이는 당시에 240년 동안 오래된 지구를 주장해 온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에 의해 동일과정설이 보편화되면서 암석의 연대를 계산도 하지 않았음에도 성경적 연대기는 무시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11년에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등장했을 때 자세한 검증도 없이 막연히 오랜 연대를 수용함으로 라이엘의 (동일과정설적) 개념이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진화 이론을 성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홍수 지질학자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1923년도 지질학을 독학한 캐나다 출신의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와 1959년의 위트콤과 모리스는 스테노의 지질학 전통을 이어갔다. 이후에 라이엘의 (동일과정설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비평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사람의 연구는 '종교적'이라는 편견 때문에 무시당했다. 1994년도에는 지질학 전공자인 오스틴 박사(Dr. Steven A. Austin)가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격변적 해석을 주장했지만, 그 역시 동일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 논리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격변론적 지질학자들의 해석을 비난하는 것이 인기있는 행동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비방이 '지질학의 창시자'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동시에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은 언제나 사람의 편견보다 훨씬 더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랜드 캐니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퇴적물의 특징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지층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아래에 놓인 지층들은 "그랜드 캐니언 누층군(Grand Canyon Supergroup Rock)"이라고 불리며 약 20도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지층 위에는 고생대(Paleozoic)로 불리는 지층이 덮고 있는데, 아래 지층을 수평으로 자른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지층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아래 놓인 그랜드 캐니언 누층군에는 동물 화석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바로 위의 고생대 층에는 화석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 두 지층은 모두 모래, 진흙, 그리고 실트(Silt)가 물에 의해 퇴적되어 돌로 굳어졌는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이런 확연히 다른 두 가지의 퇴적암이 아래 위로 접촉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것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17세기 스테노가 발견했던 토스카나 지층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에서와 똑같은 두 지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 언급된 두 가지 위대한 지질학 사건은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지질학적 특징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랜드 캐니언 누층군과 고생대 지층 사이의 차이점은 아주 분명하다. 아래에 놓인 기울어진 누층군 과 달리 바로 위에 놓인 수평의 고생대 지층은 동물 화석으로 가득한 상태로 두껍게 쌓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침식 불연속성은 '대부정합(Great Unconformity)'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고생대 층부터 갑자기 엄청난 양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생물학적 불연속성은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Cambrian fossil explosion)'이라고 부른다. 진화론자들은 지금까지 고생대 층에서 동물 화석의 전이형태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헛된 노력이었다. 전이형태는 관찰된 적이 없다. 지층에서 관찰된 분명한 증거들은 다윈의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성경대로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등장한 '종류대로'의 동식물 창조와 이에 따른 전 지구적인 격변적 홍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구상의 곳곳에 보여주는 이런 '대부정합'은 오직 창조와 홍수 심판의 역사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성경은 홍수 시작과 이어서 일어난 격변으로 지구의 지각 변동을 암시하고 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창세기 7:11), 해저가 폭발로 인해 부서졌던 것과 똑같이 그런 충격들이 기존 암석들을 부수기도 하고 지진으로 인해 경사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 누층군의 암석들은 분명히 어떤 격변에 의해 기울어졌을 것이다. 기울어진 이후에 곧 몰려온 흙과 물이 뒤범벅된 저탁류로 인하여 지층이 형성되고 그 지층 속에 수많은 해저 생물들이 매몰되었을 것이다. 이런 홍수 과정은 불과 며칠만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진화론적 수백만 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성경적 지질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조와 그 후에 일어난 홍수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그랜드 캐니언은 참 놀랍다. 그렇기에 왜 성경적 창조를 믿는 자들이 그랜드 캐니언을 항상 찾는지 알 수 있다. 물이 범람했던 창조 셋째 날의 물의 움직임과 홍수 심판사건과 이로 인한 땅의 지각 변동은 그랜드 캐니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Bill Hoesch
M.S. Geology

번역 / 서은주

참고문헌

The Second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Bologna, Italy, 1881.

The 2016 diatribe aimed against flood geology,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devotes most of Chapter 8 (authors Stephen Moshier and Gregg Davidson) to Nicolas Steno without once mentioning that he was the founder of flood-geology! (Carol Hill & others, eds., Grand Rapids: Kregel Publishing, 2016).

창조과학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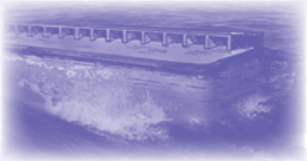
인천동춘교회
7/30 ~ 8/5, 2018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이고 이 곳에서 행복을 꿈꾸었는데 이재만 선교사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데 교과과정 중에 '지구와 환경' 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쌓이고..쌓이고, 깎이고..깎인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탐사 중 계속 나누고 싶었던 찬양을 적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감사합니다. 〈인천동춘교회/이소연 청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유일하신 오직 한 분, 그분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만나고 묵상하는 귀한 창조과학탐사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없고 입으로 다 전할 수 없지만 뜨겁게 마음으로 보고 담아 제가 더욱 새롭게 변하여 먼저는 자녀에게, 그리고 제가 몸 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만큼 제게 가장 뜨겁고 보람있는 창조과학탐사였습니다.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중보기도로 이 사역을 돕겠습니다.

〈인천동춘교회/이기영집사〉

저는 성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었지만 믿어야 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니까 받아들이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경이 살아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조차도 창세기를 믿지 않았었구나라는 깨달음에도 놀랐습니다. 창조과학탐사는 성경을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해줍니다. 그동안 비현실을 현실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왜곡하여 믿고 있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의 모습을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해내시는 선교사님의 삶이 제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창조과학탐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는데에 큰 기여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Mosaic Church/오현지〉

교회에 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 가면 불안하니까, 안 가면 부모님한테 혼이나니까 라는 이유로 아무런 믿음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제 안에 더 큰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남가주기쁨의교회/백찬희〉

창조과학탐사를 몇 년 전부터 참석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여건이 안되다가 이번에 기회를 주시고 참석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탐사에서 받은 은혜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적는다면 첫째,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것조차 범죄 후의 망가진 모습이고, 범죄 이전 즉 처음이 좋았다는 말씀을 들으며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범죄 이전의 좋았던 모습들을 유지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둘째, 세계관, 패러다임, 사고의 틀의 대한 내용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어 여기에서 자유하고 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성경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맡은 셀 사역과 고등부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대구화원교회/이석철〉

사역일정

2019 ACT Schedule

6/24-7/1	창조과학탐사 (새로운교회), 이재만
7/2-7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젊은이교회), 이재만
7/3-6	창조과학탐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재만
7/9-12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7/10-13	창조과학탐사 (LA소망장로교회 EM), 김선욱
7/15-21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4-27	창조과학탐사 (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5-27	창조과학탐사 (충현선교교회, 샤론회) 김낙경
7/28-8/1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8/5-10	창조과학탐사 (서산제일감리교회), 이재만
8/11-15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8/19-22	창조과학탐사 (국제총회선교사훈련), 이재만
8/24-30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